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다

☞ 21면에서 계속

로 한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보!" 하면 금방 남편이 돼서 말도 행도 다 그렇게 나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나가듯이 부처님 마음도, 명이 짧아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칠성으로 응해 주시고, 몸이 아파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사로 응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장으로 응해 주시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용신으로 화해 주시고, 길을 가다가 원하면 지신으로 응해 주시고, 어떠한 병고가 있고 가난해서 염원을 하면 바로 관세음으로 응해 주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십니다.

동방에는 아촉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는 관세음으로 이름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으로 이름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기 한마음,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부처는 하나지 둘이 아니라고 했던 거고 부처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재가 들어서 안 되느니, 이사를 가야 할 텐데 손이 있어서 못 가느니, 조상을 모시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느니, 모두 이러는데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관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탁 떼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 이사를 가면 그게 좋은 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지금 살아나가기도 급급해 죽겠는데 종교마저도 그렇게 거북해서야 어떻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게 다 종교입니다. 종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방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안방에 부처가 계시고 변소에 가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계십니다. 법당에 가시면 항상 그 형상은 내 형상이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은 내 생명이니 둘이 아닌,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일 배를 올려도 만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배를 올려도 일 배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으니, 마음이란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광대무변해서 모두 알 길이 없겠죠. 천당 지옥이다 하는 것도 말로만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본다면 실감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간세계에 나와서 개같이 살았더랍니다. 그다음 생에 개로 화해서 개 모습을, 무명을 쓰고 나왔죠. 개 모습으로 하고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로 대접을 해 주더라 이겁니다. 개 모습이니까 개 노릇을 해야 하고 개 대접을 받아야죠? 자기가 아무리 사람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은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라고 해 놓은 것은 모든 천차만별의 사생의 그 뜻이 그냥 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세계라는 것은 체로 거르듯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거르듯이 이렇게 걸러져서 위로 차원이 높아지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솔솔 나오는 것은 바로 자동적인 마음의 컴퓨터에 그렇게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되입력을 한다면, 모든 걸 거기다가 방하착 하고 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만이 이끌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다.' 하고 다 거기다 놓는다면 바로 되입력이 돼서 앞서 입력된 것이 몰락 무너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만 알고 혼자 생각하고 아무도 모르게 나쁜 일을 하고 또 속으로 남을 원망하고 욕을 하고 이랬다 해서 혼자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주와 세상과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고, 우주간 법계에 가설이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으니 어찌 감추오리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 세간에서 그런 말들을 하죠?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실천을 못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못 하는 원인은 실감이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실천에 옮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업보성이나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윤회성, 이 모두에 끄달려서 여러분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자기가 길을 걸어가다 엎드러지면 그 길을 짚고 일어나야지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상대를 두고서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공심으로 돌려놓는다면 만 개가 있어도 하나요, 또 하나가 있어도 만 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 놓은 대로 일일이 각각 찾고 돌아다니니 자기 마음은 언제 보겠습니까? 보는 대로 자기 아님이 없고 이 세상 만물만생이 자기 아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우리 인간이 되기까지, 구름이 모였다가 헤어지고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이러듯이, 모두 돌고 돌아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짐승이든 새든 독사든 사람이든 수없이 거푸거푸 돌았기 때문입니다. 돌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온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끌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되돌려 놓고 거기를 지켜보는 관을 하시란 말입니다, 관! 지켜보는 관이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을 찾을 때 저 높이 올려놓고 찾거나, 주인공을 찾는다 하더라도 둘로 보고 '주인공, 나에게 이런 걸 좀 해 주시오.' 한다면 벌써 이건 어긋나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할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주인공이 한 거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이야!' 하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그냥 거기다가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 **할 수 있다 없다를 다 주인공에다 되돌려 놓고**
>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체가**
> **바로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가 만 개가 있은들 어떻습니까. 만 개도 하나요 하나도 만 개니, 칠성이다 독성이다 산신이다 약사다 지장이다 하고 따로따로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의 한생각이 문수도 되고 보현도 되고 그러니까요. 한생각을 일으켰다 하면 문수요 한생각을 일으켜서 움죽거렸다 하면 바로 보현입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좀 많습니까. 가정에서 금방 형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금방 친구가 됐다가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의 이름, 안에서의 이름, 그 이름 이름이 좀 많습니까. 지네가 그렇게 많은 다리를 가지고도 걸리지 않고 여여하게 걸어가듯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부처님 법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아이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찾어?" 하든가 또 "난 기독교를 믿으니까 뭐, 불교 그까짓 마구니 소굴." 이렇게 밀쳐 버리고 마는데 그런 거는 정말이지 절대적으로 100%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교란, 불법이란 어느 한 군데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거를 어떻게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부처라고 했습니다. 즉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남편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또 자식 노릇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든 했다고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또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라도 아니 되시는 게 없습니다. 돼지를 건지시려면 돼지 소굴로 들어가서 응해 주시고, 독사가 염원하면 독사로 화하시고, 찰나찰나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되실 때 부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이 들어와 있는데도 전깃줄과 전깃줄이,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지 않는다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치니까 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누가 켰을까요? 이쪽 줄이 켰을까요, 저쪽 줄이 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스님한테 덕을 봤다든가 좋은 법을 내가 배웠다 하더라도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고 저 전깃줄이 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법이 법당에 가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법당에 가야만 부처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그 시공이 없는 진리를 진리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포함돼서 내가 가고 있는데도 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하거나 잠시 잠깐 했다고 한다거나 '법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법당에 갈 때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어졌다가도 도로 끊어지니까 도루묵이죠, 도루묵. 이어졌다가도 그냥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니까 갔던 것이 무효가 된 거죠.

앉아서 좌선을 해도, 좌선을 한다 안 한다는 이유가 붙으면 좌선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좌선이 돼야지 몸뚱이가 좌선이 돼서 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아주 그냥 잠재해 있듯이, 어디서 뇌성벽력이 들어온다, 하늘이 깨져 무너진다, 밥을 굶는다, 생명이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움죽거리지 않는 마음을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그거를 알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평등공법으로 볼 수 있고 활궁공법으로 볼 수 있고 수레공법으로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식들께서 "나는 샘물도 젖지 않는다 하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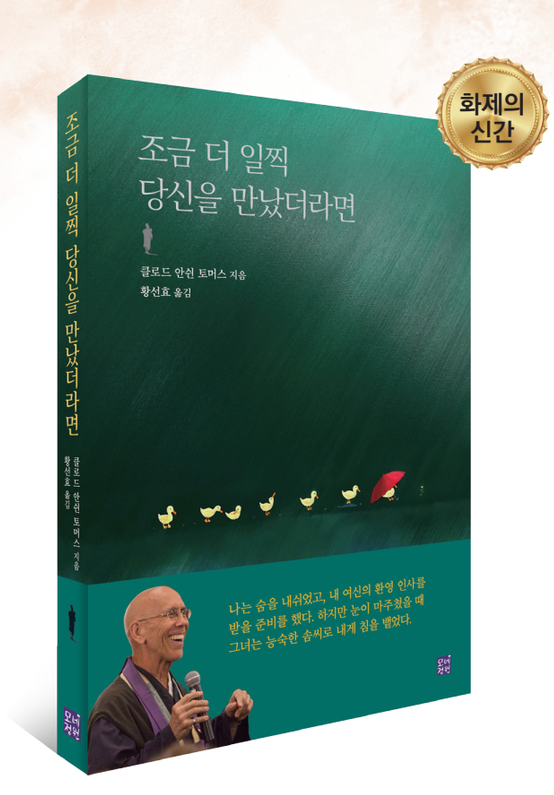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알아 둬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은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외국에 가 보니까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가정이 많아요. 전체가 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그런 가정이 많죠? 가난해서도 그렇지마는 돈이 있어도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백일기도를 드리러 올라간다면서 목욕재계하고 음식도 모두 가리고 남편도 자식들도 굶주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거부하면서, 아무리 백 일 아니라 천 일을 올라가서 기도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남편은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를 하게 되고 애들은 이탈이 되고, 이렇게 되면 가정 파괴가 오고….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모두가 다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부처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한생각이 중요한 것이므로 법당에 자주 나가되 그렇게 끈질기게 노닥거리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구가 기도드리는 백 일만 돌아가나요? 그러면 기도드리고 왔을 때는 지구가 멈춰지겠네요? 한날 한시도, 일 분일초도 떠나지 않는 자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끊어뜨리지 않아야지' 한다면 끊어지는 법이고, 끊어뜨린다 끊어뜨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없어진다면 그대로 여여한 겁니다. 그래 여북하면 여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만 여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여여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다 여래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1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